

李대통령 “‘지방주도성장’으로 대도약 원년 열겠다”

‘5국 3특’ 대한민국 재도약 필수전략
수도권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수도권중심’에서 ‘지방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진)

기존의 자원 집중 방식이 이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진단하고, 국토 전체를 넓게 쓰는 ‘다각 체제’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수도권 1국 체제에서 ‘5국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서울=경제수도 ▲중부권=행정수도 ▲남부권=해양수도로 각각 지정해 국토를 다각 체제로 넓게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과격적인 지원 원칙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2

시 이뤄내겠다”며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하겠다”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정부와 부강한 광주 도약”

●강기정 광주시장



2026년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강한 광주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AI·마리자·반도체를 삼각축으로 미래산업을 키우겠습니다. 1조원 규모의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고도화시킬 것이며 이미 예산이 확보된 6천억 AX 실증밸리 사업과 2조5천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사업을 빛틈없이 기획하고 착수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미래차산단과 빛그린산단 등을 중심으로 미래차의 핵심 부품을 인증하고 개발하는 생태계도 조성될 것입니다.

8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도 끌어내겠습니다.

AI·마리자·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성과가 제조·의료·부

티 등 9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광주가 잘 해오던 인재 양성 사다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AI사관학교와 GCC사관학교를 비롯해 GIST-삼성의 반도체계약학과, 전남대 등 4개 대학의 AI융합대학 등을 지원해 인재 양성 사다리를 만들 어왔습니다.

AI사관학교는 내년부터 1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될 것이며 AI영재고는 개교를 위한 국비 확보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전략에 발맞춰 더 큰 광주·전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동반성장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교통·산업·에너지·환경을 함께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체감 민생 온기 불어넣을 것”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2025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광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슬픔의 현장에서는 눈물 어린 연대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뜨거웠던 광장의 목소리와 민생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2026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9대 후반기 광주시의회는 올해 의정 성과의 연속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이 실현되는 진심의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단한 시민의 지갑과 식탁을 세심히 살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체감되는 민생 온기’를 채워 넣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그 진심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을 실증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과 시민의

일상에 인공지능을 입히는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고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신산업이 광주의 100년 멀거리가 되도록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5국 3특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변화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의회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의 가치로 당당히 세우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당당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겠습니다.

“기본교육으로 다양한 실력 키울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지난해 광주교육은 굵직한 열매들을 수확한 한해였습니다.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는 경사가 있었고 진로진학지도사례 ‘대상’, ‘수학교육상’ 수상, 2년 연속 시·도 교육청 ‘최우수’ 평가 등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가 키운 ‘광주교육’의 열매들이 더 넓은 대지로 퍼져울창한 숲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력의 토양을 다지겠습니다. ‘교육안전망’으로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고 ‘맞춤형 성장’을 통해 실력을 키우며 ‘행복공동체’가 그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광주 학생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경계선 자동 학생 지원’ 확대로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고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운영으로 미래산업 인재

를 양성하겠습니다.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둘째, 광주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을 위해 ‘교육 활동 보호 민원면담실’을 구축하고 ‘위기교실 케어샵’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광주 학생들은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한바퀴’, ‘이중언어 협력교사’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광주 학생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지능형 과학실 구축, ‘JAM있는 과학 증점 주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여러분께 배움의 힘을 드리는 광주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남 황금시대’ 힘차게 열겠다”

●김영록 전남지사



1천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남 황금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로 과감히 확대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편을 바꾸겠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대폭 확충해 농가 소득을 5배 이상 높이고 공공 주도 재생 에너지 개발로 도민과에너지 기본소득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 성장과 기본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조격자 첨단 과학기술을 더해 전남의 미래를 이끌 압도적 성장판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전남도 과학기술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과학으로 먹고사는 전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글로벌대학인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와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인공태양 연구를 비롯해 AI, 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미래 첨단기술 개발을 선점하겠습니다.

국가 기반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등 제조업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AI로 혁신하는 ‘AI 대전환 혁신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확실하게 성공시키고 2028 G20 정상회의, COP38 유치에 도전해 대한민국 국격과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시작으로 40년 행정 경계를 허물고 굳건한 광역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AI·에너지 시대를 맞아 양 시·도의 경제적 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광주·전남 대부흥’을 위해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삶 지키는 민생 중심 의회 구현”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새해에도 다음과 같은 의정 방향을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농어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정책 집행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주거·일자리·돌봄·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특히 시·군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제도 개선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전남형 만원 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전남에 새로운 활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AI 컴퓨팅센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굵직한 미래 국가 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와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위기의 매 순간을 기회로 치환해 나가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존경하는 전남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험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6년은 전남교육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잇는 체계적인 AI 리터러시 교육, AI 연계 200교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IB교육,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치열하게 탐구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남의 문화에너지를 기반으로 공생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남의 의(義) 정신과 천혜의 자연, 풍성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전통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칭) ‘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축구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